



병원사목과 이념구현

유 봉 운 신부

〈대전성모병원장〉

병원사목하면 특수사목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칫 하면 입원환자, 그중에도 특히 임중에 가까운 환자에 치중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하나 사실은 병원사목처럼 중요하고 효과적이며 힘든 사목도 없을 것이다. 그 중요성에 대하여는 재론할 여지조차 없겠지만,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루는지는 각병원 원목실에 얼마나한 숫자의 사제나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마나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 정력을 다해서 연구검토하며 얼마만큼 정성들여 활동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환우들의 분포범위를 보면, 불과 1만평 내외의 제한된 장소에 집산되어 있다. 그러나 들어오고 나가는 환우들이 잦은 교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특수사목이란 점을 고려하며, 부단한 연구, 계획, 검토가 필요하며, 정성스럽고 열성스런 활동으로 효과적인 선교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원사목 활동상을 보면,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피부에 닿도록 병원사목이 과연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느낌을 엿보기 힘든 것 같다. 여기에는 원목활동이 시작된지가 일천한점에도 이유가 충분하겠지만, 병원특수사목에 대한 배려부족과, 원목실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명감 부족 및 원목활동의 부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얼핏 생각컨대, 각 교구나 수도 단체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고급인력을 병원에 투자하고 있으며, 1개본당(아주 큰 본당)보다도 훨씬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봉사에 임하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의 신앙생활이나 선교활동은 아주 저조하다고 본다. 만일 교구나 수도단체가 경영하는 병원에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과학적인 치유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면으로 볼때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혹평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아닌 예수님의 치유는 가장 완벽한 치유로써 한번 병을 고치신 다음에 재발하는 사례가 전혀 없지만, 그분의 치유는 다만 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하느님과 연결지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한 방법이었다. 때문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실천이념이나 가톨릭병원협회의 이념이 바로 그리스도의 치유이념과 동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병원의 치유과정에 있어 방법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톨릭이라는 글자를 빼야할 것이다.

불행한 현실이지만, 환자의 치유를 목적으로한 자연과학도들이 주종(상당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종사자의 사명감 부족일까? 어쨌든, 좀 석연하지 못한 느낌이다. 이 기회에 가톨릭병원 계통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나 직원들이 환우치유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구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힘써 말하고 싶다.

여기, 일본에 있는 어느 유명한 병원에서 일어났던 사실 한가지를 소개함도 뜻있을 것 같다. 한 터미널 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사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였으니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함으로 그 보호자는 환자를 맡은 의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제와서는 의사가 나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 절망도 되고 화도나서 그러면 이제 환자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불쾌하

게 물었더니, 이제는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도, 환자도, 보호자도 다 무종교인이었다.)

모든 것을 의사에게만 의존하고 병원에 맡겼는데 이럴수가 있는가?

의사가 이렇게 모질고 냉정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일본에서 귀국차 비행장에 가는 도중에 운전기사과 본인이 나누는 차내 대화의 한토막이었다. 그래서 나는 거침없이, 그 의사선생님이야말로 참으로 정직하고 훌륭한 의사라고 칭찬하며, 앞으로 병원에 가려거든 그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시오. 왜냐하면 보통으로는 의사로서 그런말을 하지 못합니다. 체면과 명예때문에라도... 하고 말해 주었다. 아울러 인간의 능력과 과학은 한계가 있다고...

병원사목은 환우들을 위한 사목뿐 아니라 병원직원을 위한 사목이 어쩌면 더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병원이고 입원환자보다는 건강한 직원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가톨릭병원협회의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도 특별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치 각 본당에의 사목과 같을 뿐더러 아주 용이하고 좋은 여건과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좋은 여건과 환경이라 함은, 의료인도 환자도 전력을 다한 다음에는 하느님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곤경에 이르는 경우를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으며 이들과 더불어 한우리, 한집안에 살고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데,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에 좀 등한한 감을 아쉽도록 느낀다. 예컨대 각 병원마다 직원미사와 환자를 위한 미사가 있는데, 환우를 위한 미사는 매일 직원을 위한 미사는 주 1회 정도이다. 그나마도 안내방송을 들어보면 신자와 관심있으신 분에게 알리는 안내방송을 하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의 말이 아무런 호소력이 없이 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다. 미사에 참석하려 오는 직원도 극히 드물다. 과연 가톨릭병원에서 실천이념을 제정만 해놓고 현상태대로 해도 괜찮을 것인가? 이상태 이대로 좋은 것인가? 과연 이념은 구현될 것인가?

협업이지만 환우들보다는 직원들을 위한 사목이 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보면 이때까지 어떤면으로 보아,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즉 환자의 치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치유는 그 방법이 됨을 뚜렷이 한다면 먼저 우리 이념을 실천해야 할 당사자인 직원들의 사목에 치중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병원의 이념실천은 요원한 것이 되리라. 더우기 그중에서도 가톨릭의대 부속병원은 의료진 대부분이 가톨릭의대 출신으로 구성되어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로부터 가톨릭냄새가 풍기지 않고 자연과학도의 냄새만 짙게 풍김은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불고기집에나 갈비집에나 다녀와도 옷에 그 냄새가 배서 즉시 알아챌 수 있다면, 6년 내지 10년을 가톨릭 대학교에서 그나마도 하느님과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생명을 다루는 의학도 또는 의료인으로서 지내온 그분들에게서 가톨릭적 냄새가 풍기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아니 놀랄 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병원사목에 대한 중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 이상한 이론을 가진 신앙인 한분을 보았다. “우리가(사제, 수도자) 이 병원에 와 있는 목적은 바로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관리하려고 파견된 것이 아닙니다.” 답왈, “믿음은 자유인데 믿음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진토처럼 버리고, 몸도, 마음도 하느님께 몽땅 바친 우리들의 입에서는 감히 함부로 토로할 수 없는 논조였다. 우선 직원들을, 또한 환우들을 하느님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많은 금액과 그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을 투입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한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쓴 말을 거침없이 써본다.

영생의 말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을 과연 믿어도 안믿어도 자유인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유는, 과연 무제한인가?

완벽한 치유자인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병원에 파견된 주된 이유가,

직원들과 환우들로 하여금, 하느님과의 관계정상화, 즉 가톨릭병원이념을 실천함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낱 값싼 품팔이꾼에 지나지 않는 처량한 신세일 것이다. 한번쯤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오늘의 병원사목, 이대로 좋은가?
이래도 우리 병원의 이념은 성실하게 구현될 것인가?